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출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거나, 친구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는데도 오해가 풀리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쉽게 “아… 그냥 포기할까?”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기도’에 대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였고 도움을 줄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억울함을 들어줄 재판장이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라면 과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과부가 한 가지를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계속 찾아가고, 계속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처음에는 귀찮아서 무시했지만,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풀어주겠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과부가 받았던 응답은 억지로 얻어낸 것이었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고민, 작은 탄식까지도 들으시고 때에 맞게 도와주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나요? 풀리지 않는 문제, 바뀌지 않는 상황,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낙심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계속 나에게 말해 보렴.”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요.

출일교회 가정예배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하나님 사랑이 다같이

말씀봉독 누가복음 18:1~8절 다같이

설교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마음 설교자

말씀나눔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같이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 찬양 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과부의 행동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 보세요.
2. 요즘 내가 쉽게 포기하려 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오늘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